

서부간선지하도로 10.33km 개통

착공 5년6개월만에 왕복 4차선... 지하 80m 터널로
만성정체 성산대교~금천IC 30분서 10분으로 단축

통행료 2,500원... '월드컵대교'도 동시 개통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잇는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지난 1일 낮 12시 개통됐다. 교통량 분산으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10분대로 줄어 들었다. 이와 함께 서부간선지하도로와 연결되는 한강의 31번째 교량인 월드컵대교도 동시 개통됐다.

양천변을 따라 건설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 80m 아래에서 뚫은 도심도 지하터널이다.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별도 출구없이 바로 연결되는 총연장 10.33km 왕복 4차로 도로다.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뜨지 5년6개월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건설된 유료도로로 지하도로를 통과때 2500원을 내야 한다.

다. 민간사업자는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서울시에 양도하되 30년간 운영을 통해 통행료로 수익을 낸다. 이번 도로 건설에 시비 2352억원, 민간자본 5267억원이 들어갔다. 운영사인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는 시민 이용 불편이 없도록 2주간 무료 시범운행을 거쳐 9월 15일(수)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지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기존 지상도로는 일반도로로 전환, 2024년까지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등이 설치된다 <3면으로 계속> <채홍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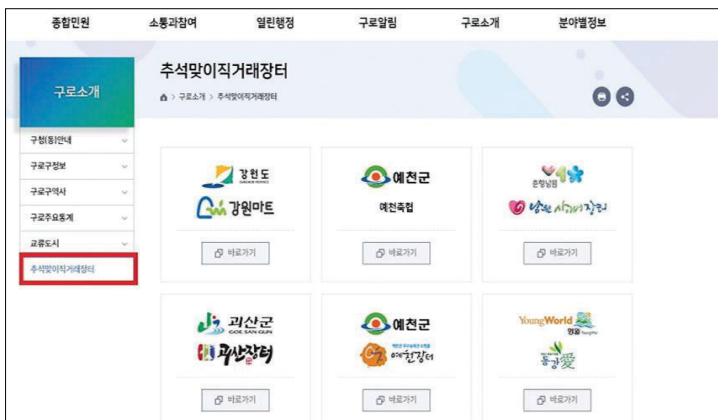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가 지난 1일 정오에 개통됐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지하 80m 깊이에 직통으로 잇는 10.33km의 왕복 4차로 대심도 지하 터널로 지난 2016년 3월 첫 삽을 뜨지 5년 6개월 만에 완공됐다.

'추석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 개설

자치단체 21곳 특산물 판매... 13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서 주문
6~17일 전통시장선 빅할인, 상품권·쿠폰 제공 등 다양한 행사도

구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코너'를 마련했다. 구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구청 광장에서 개최하던 직거래장터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직거래장터에는 전북 남원시, 충북 괴산군, 경북 예천군, 충북 단양군, 전남 해남군, 강원 영월군 등 구로구 자매도시를 비롯해 총 21곳의 자치단체 농가들이 참여했다. 과일, 한우, 수산물, 잡곡류 등 지역 특산품을 시중가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한편 남구로시장을 비롯, 구로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 남구로시장 등서 시장별로 빅할인, 상품권 또는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청 홈페이지에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코너'를 마련했다. <사진은 구청 홈페이지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코너>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 ※거주불명자는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 09:00~'21.10.29.(금) 18:00
※ 신청 첫째주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 신청 첫째주는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16:00)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세요!** '21.9.13.(월) 09:00~'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 콜센터**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전담 콜센터 (1533-2021) ·구로구 콜센터(02-2620-7740)
-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접수 : '21.11.12.(금)까지 접수 ·처리 : '21.12.3.(금)까지 마감

구로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개회

특별위원회 구성, 제3회 추경안 185억 심사, 조례안 등 안전 처리

회기 6일~13일 8일간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지난 9월 6일 오전 10시 이성 구청장과 국·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앞서 지난 달 3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철수)를 열어 제30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3일까지 8일간 회기로 특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 활동,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18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안전심사 등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인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안전관리·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9월 7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전심사를 진행했다. 9월 8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

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다음날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진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은 ▲서울시 구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박동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공공외과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형주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구로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름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수임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

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첨단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서울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 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한사랑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9건이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의정활동비·공무국외연수비 등 2억 반납

“코로나19 극복재원 마련 동참” 전 의원 뜻 모아 결정

구로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책정된 구의원 공무국외연수비, 의정활동비 등 2억 원을 추경을 통해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반납된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국무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한 바 있다.

앞서 구의회는 최근 열린 의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구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구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국무국외연수비 등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반납 금액은 국외연수비 1억 1천240만 원, 의정활동비 5천960만 원, 직원출장여비 2천만 원, 국내여비 8백만 원 등 총 2억 원으로,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동웅 의장은 “구의회는 반납 예산을 포함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대응 체계 강화와 구민 생활 안정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사업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구민 생활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도록 구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청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구의회 예결특위·안전관리특위·윤리특위 구성

위원장에 예결 이재만 의원-안전관리 박평길 의원 선출

구로구의회는 지난 6일 오전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 시킨 후 곧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척1-2동, 개봉1동)과 안전관리특위 위원장에 재선의 박평길 의원(국민의힘 개봉2-3동)을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출하지



이재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장

않고 다음 10월 임시회때 선출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
 △이재만(위원장)△정대근(부위원장)△박철성△최숙자△박평길△김희서△정형주△이명숙△노경숙.
 ◇안전관리특별위원회(7명)
 △박평길(위원장)△정형주(부위원장)△서호연△정대근△김철수△이재만△노경숙.
 ◇윤리특별위원회(7명)
 △서호연△박철성△정대근△김희서△이재만△정형주△이명숙.
 <채홍길기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표창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10시 제303회 임시회 개회전 지난 6월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청 우수 부서를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상패를 받은 우수부서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과장, 동장)

△자치행정과(곽정희) △청소행정과(임보상) △보건행정과(김영렬) △여성정책과(안우영) △환경과(이규택) △주차관리과(권오신) △구로2동주민센터(윤창익) △개봉2동주민센터(한상률).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6일 오전 10시 제303회 임시회 개회 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청 우수 부서장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協 제163차 정기회의 개최

‘함께 가는 자치분권 성장하는 지방정부’ 슬로건 발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오전 온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함께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함께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에서 협의회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지원 연장(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시비 지원 관리주체 및 안전대책 마련(양천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 예산지원 건의(강북구) 등 4건의 자치구 공동현안을 심의하여 서울시에 정식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협조 사항으로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자치구 자체 찾아가는 선별진료

소 설치 운영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서울런’ 운영 안내 및 이용 협조 △자치구 코로나19 폐기물 처리지침 준수 △안심마을 보안관 시범사업 운영 △2022년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조성 신청 △2021년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 등 모두 7건의 협조사항을 제안하고 자치구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의 지향과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 발표됐다. 협의회는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함께 가는 자치분권 성장하는 지방정부!”를 슬로건으로 결정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서울·경기 8개 지자체 힘모아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이성 구청장 등 서울·경기 8개 각구청장-시장 화상으로 참석 협의회 규약 검토, 예산 공동 확보, 국가정원 지정 등 활동 논의

초대회장에 이성 구청장 선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8월 31일 서울(구로·금천·영등포·양천)과 경기(광명·군포·의왕·안양) 8개 지자체 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로구는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의 체계적인 협력과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창립총회를 열어 지방 정부 행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는 협의회를 이끌어 갈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8개 지자체 대표가 참석했다.

창립총회는 그간 진행된 사업 추진 성과를 되돌아보고 행정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검토, 향후 행정협의회 주요활동(예산 공동 확보, 명소화·고도화 사업 추진 방향, 국가정원 지정 등)을 논의했으며 행정협의회 회장 추천과 선출도 이뤄졌다.

초대회장엔 이번 행정협의회 창립을 주도한 이성 구로구청장이 8개 지자체장의 전원 동의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6월30일이성 구청장의 3선연임 임기 완료시까지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통해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인사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실무협회가 있었고 내년도 국비 예산 선정을 위해 국토부, 지역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서울시는 시비 예산 관련 해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시장에도 요청했다”며 “경기도에서도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 요청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쪽에서도 한창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길 바랍니다”며 마무리 했다.

앞서 구로구는 1월 더 좋은 안양천으로 바꾸기 위해 이성 구청장 제안으로 1월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 등 4개 자치구와 함께 ‘안양천 명소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월에는 안양천 고도화 사업을 위한 광명·군포·의왕·안양 등 경기권역 4개 지자체 실무협의회에 이성 구청장이 대표로 참석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소개하며 범위를 경기까지 확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11일에는 안양천 생태초화원에서 8개 지자체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의 공동 추진에 대해 뜻을 모았다. <본지 871호 1면 특

보도>

8개 지자체가 안양천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한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은 안양천 일대를 수목원 수준으로 조성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녹색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이성 구청장의 민선7기 핵심 공약 사업이다. 그 결과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생태초화원(1만 7500㎡), 창포원, 장미원을 조성하고 그늘목 식재, 제방사면 생태복원 등을 마쳐 주민 대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수영 녹색도시과장은 “행정협의회 구성으로 8개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의 실행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수도권의 관광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창립총회가 지난 8월 31일 서울 구로·금천·영등포·양천구와 경기 광명·군포·의왕·안양시 8개 지자체 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5월 11일 안양천생태초화원에서 열린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서울권역-경기권역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김상돈 의왕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이성 구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구로구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식과 관련 안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성해 국내 최고의 하천 명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상공에서 본 생태초화원 등 잘 가꾸어진 안양천 일대 모습>

서부간선지하도로 10.33km 개통

<1면에서 계속>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시속 80km 이하로 지하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 중량 3.5톤 이하) 등이 통행이 가능하다. 이륜차나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통행이 제한된다.

지하도로 개통으로 하루 최대 12만대에 이르는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약 5만대가 분산되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 시간이 단축되고 대기질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국내 지하도로 최초로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미세 먼지와 유해가스를 터널내부에서 자체 직접 정화하는 ‘바이패스(By-Pass) 환기방식’이 도입됐다.

또한 서울 한강의 31번째(서울시 구간 26번째)교량인 마포구 삼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월드컵대교도 이날 동시 개통됐다. 지금까지는 서부간선도로에서 내부순환로까지 직접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성산대교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 월드컵대교

를 이용하면 성산대교와 주변 도로의 상습교통정체 구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월드컵대교 개통으로 하루 평균 8만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인근 성산대교 교통량이 하루 평균 15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해 주변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컵대교는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지어졌는데, 2000년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기본설계를 해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총 연장 1.98km로 왕복 6차로 교량이다.



지난 1일 서부간선지하도로와 함께 개통한 한강의 31번째 교량 월드컵대교.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직접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현장을 방문, 막바지 개통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오 시장은 “월드컵대교와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으로 성산대교 및 주변도로는 물론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거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1인당 25만원씩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 온라인 신청은 6일,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시작

구로구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로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시작되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앱)·콜센터,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을 통해서 가능하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온-오프 모두 신청 첫 주에는 5부제를 적용한

다. 9월 6일(월)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7일(화)엔 2와 7, 8일(수)엔 3과 8, 9일(목)엔 4와 9, 10일(금)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사용기한내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이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동거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위임장, 대상자·신청인 신분증,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온라인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

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울사랑상품권 앱으로,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카드 연계 은행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흡수

구로스포츠클럽 새 회장에 이제성 부회장 선출

구로스포츠클럽 새 회장에 이제성 상임부회장(사진)이 선출됐다.



로의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지역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다양한 프

구로스포츠클럽은 지난 8월 17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인 회장에 단독 출마한 이제성 상임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신입회장의 임기는 8월 17일부터 2025년 8월까지 4년이다. 이제성 회장은 현재 구로구체육회장도 맡고 있다.

이번 회장 선출은 구로스포츠클럽 회장을 겸임한 이성 구청장이 지난 3월 사임하면서 회장이 공석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제성 회장은 "공공체육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구로스포츠클럽의 회장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 스포츠클럽이 구

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회원 중심의 공공스포츠클럽을 지향한다"며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자 중 체육에 소질이 있는 유·청소년을 조기 발굴 육성하는 한편, 육성한 전문 선수는 은퇴 후에 스포츠클럽 지도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스포츠 선진국형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평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청 일정, 방법 등 자세한 사항

은 구로구 콜센터(02-2620-7740)에 문의의 혹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청년의회 청년정책포럼' 참석

청년의원들과 화상 통해 정책 방향 및 피드백 등 제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달 28일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교 미디어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정책포럼에 참석했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달 28일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교 미디어캠퍼스에서 열린 청년정책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5월 출범한 제2대 구로청년의회에서, 34명의 청년의원들이 구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 상임위원별로 준비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청년의회 의장과 구의회 박동웅 의장만 현장에 참석하고 청년의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박동웅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발표 및 박동웅 의장의 피드백, 조례안 전달식,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의회는 박동웅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청년의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발표 및 박동웅 의장의 피드백, 조례안 전달식,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제하면, 박동웅 의장이 청년들의 정책 의견을 경청한 후 실현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조례안에 답을 추가 아이디어도 제안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제안된 최종 정책·조례안을 청년의회 의장이 박의장에게 공식 전달했으며 구로청년의회 수료증 및 공로상 수여식을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됐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7월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로청년의회 의원들과 구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건의사항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조례안들을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고 실무부서와 논의하는 등 청년들의 제안이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소외된 우리이웃을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화 한 통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발견하셨다면 ☎ 1688-7934 로 연락주세요!

-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하는일
 - 소외계층 발굴 지원 (민간자원 연계)
 -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취약계층 지원)
 - 사회복지단체간 연계·협력 (복지자원 공유)
-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8-468441
 -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구로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구로사랑상품권’ 100억원 규모 추가 발행

7일 10시부터 20개 모바일 앱 통해 1, 5, 10만원권 판매 할인율 10% 소득공제 30% 혜택... 관내 1만2601곳서 사용

구로구가 7일 오전 10시부터 ‘구로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했다.

구로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발행은 지난 7월 발매한 11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판매가 완료됨에 따른 3차 발행이다.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인 ‘구로사랑상품권’은 1, 5,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가맹점 1만 2601곳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다.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



구로구가 7일 오전 10시를 기해 ‘구로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했다. 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했다.

는 경우 현금 63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로사랑상품권’ 구입은 7일 오전 10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제로페이온,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신한 솔(SOL),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Syrup Wallet, 농협상호금융 록뱅크 등 20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올해 2월 180억원, 7월 110억원 등 총 425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모두 조기에 완판됐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화목한 집안은 밥상 분위기도 화목하다. 밥상 분위기가 화목해 지려면 밥상문화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밥을 먹을 때 밥 한톨 남기지 않는 것은 농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밥을 지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뜻이기도 하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자식이 늦게 수저를 드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효이다.

요즈음 젊은 엄마들은 하나 밖에 없는 자식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이 밥 먹기 싫다고 하면 따라 다니면서 밥을 먹여 주는가 하면, 채식을 싫어한다고 해서 햄이며 고기 튀김 중심의 밥상을 차려 준다.

한국인의 밥상 문화 ㉑

밥을 먹을 때 소리 내어 씹지 않고 입을 다물고 얇전히 먹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고, 반찬을 편식하거나 뒤적거리지 않는 것은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주는 배려이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자제력이 키워진다.

이처럼 밥상 문화는 단순하게 끼니를 때우는 생존의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와 겸손과 예의를 주는 배경이기도 하다.

편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영양의 불균형은 면역성을 약화시켜 잔병을 일으키게 한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자기 의지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는 등 분노장애를 일으켜 평생 마음 고생을 하게 된다. 노인들이나 중년들에게만 오는 당뇨가 요즈음은 중학생도 걸리는 원인도 유전자 탓을 하기 전에 편식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본지 회장>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 서 감사패 받아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이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에서 감사패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세정 센터장, 이재만 의원, 정애희 원장, 윤정숙 센터장>

구로구의회 이재만 의원(고척1·2,개봉1동)이 지난 8월 26일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 김세정 센터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2004년 고척재미난방과후교실이 개원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시설보강개선사업에 대한 이 의원의 공헌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세정 센터장을 비롯한 고척어린이집 정애희 원장과 희망의 복지재단 윤정숙 센터장이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김세정 센터장은 “이재만 의원의 도움이 있어 개원 이후 17년만에 처음으로 구청 시설기능보

강개선사업 지원을 받아 방과후 아이들이 행복한 학습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감사한 마음에 담아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패 전달에 대해 이재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제한을 받아왔던 아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행복한 학습환경에서 마음껏 방과후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방과후 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면서 다음세대를 위한 오래된 시설 및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개봉1동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 추진

'우리동네 살리기'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선정 ... 3년간 총 25호 지원 20년 경과 4층 이하 단독·공동주택 대상 ... 최대 1,200만원 지급

구로구가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3년간 '개봉1동 우리동네살리기사업'을 진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봉1동 노후주택개량지원사업은 선정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의 외부경관 개선을 위해 구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올해 5가구를 시작으로 3년간 총 25가구의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개봉1동 139번지 일대(51,400㎡)는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선정 조건은 공고일 기준(8월 23일)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

과한 4층 이하의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이다.

무허가·위법 건축물, 전체 면적 중 주거용도 50% 미만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호당 최대 1,200만원이며, 지원비용 초과부분과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단, 선정된 주택 건물주, 임차인이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자부담률 5%를 인하해준다.

지원내용은 지붕, 옥상, 외벽, 외부창호, 옥외계단, 담장, 대문 등 노후주택의 외부경관 관련 개선이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및 개별 세대 소유자는 신청서, 사업지원 조건 동의서, 건축물대장 등 구비

서류를 갖춰 개봉1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개봉1동 141-57)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봉1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70-5172-9543)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이달 중 현장조사를 거쳐 집수리 공사비용, 범위에 대해 심사하고 최종 지원 내용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안순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오래되고 위험했던 노후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 선정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이 6일 2021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감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사진〉



공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2일까지 구로구와 소속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 및 전년도 처리의견에 대한 보완 실태 △주요사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했다.

특히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업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업무개선 및 혁신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유영환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 체육, 문화,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맡은바 임무에 성실히 임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소상공인 간판 교체·설치비 최대 200만원 지원

구등록 옥외광고사업자 통해 불법·노후 간판 교체·신규 업소도 17일까지 구청 건설관리과 신청... 지원대상 60곳 선정 개별 통보

구로구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교체·설치비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를 돕기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구로구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를 통해 불법·노후 간판을 교체하거나 개업을 앞두고 새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최대 200만원이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나 부가치세는 업소가 부담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신청 서류를 갖춰 이달 17일까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류, 지원제의 업종 등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업소 60곳을 선정하고 이달 중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11월까지 간판 교체·설치를 완료하면 된다.

문의) 구청 건설관리과 860-2970. 〈김유권 기자〉

동별 추석맞이 '자원봉사 물결운동' 전개

7~17일 취약계층 주민 대상 추석 음식·쌀·생필품 등 전달

구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릴레이식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전개한다.

'자원봉사 물결운동'은 각 동 자원봉사협력단이 주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릴레이식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가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활동 대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필요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일 가리봉동을 시작으로 17일 오류1동까지 16개 동 자원봉사협력단 단원들이 릴레이를 펼친다. 저소득,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 700여명에게 추석 음식, 쌀, 생필품 등을



구로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릴레이식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전개한다. 자원봉사 물결운동'은 각 동 자원봉사협력단이 주관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대면 활동 대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필요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달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3동주민센터, 괴산 특산 '건 고추' 직거래 행사

구로3동주민센터(동장 이동섭)는 자매결연지역인 충북 괴산군 괴산읍의 '괴산고추축제'를 맞아 특산물인 '괴산 건 고추 직거래 행사'를 펼친다.〈사진〉

괴산 건 고추는 6kg(10근) 1포대 당 폭지 제거 16만원, 폭지 미제거 14만원으로 택배비 무료로 근당 1000원 할인 해준다.

기간은 9월 9일(목)까지 구로3

동주민센터 전화(02-2620-7407)나 방문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현금 또는 계좌 입금(주민자 실명 입금)이며, 택배 배송은 8일 이후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이동섭 구로3동장은 "우리동과 자매결연 지역인 괴산군의 특산물 '건 고추'는 청정지역 괴산에서 재배, 빛깔이 곱고 매콤하며 현지 작목반의 철저한 선별과정을 거친 우



수한 품질"이라며 "질 좋고 값싼 '괴산 건 고추'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2021 구로청소년총투표' 실시

191개 제안중 10개 정책 선정...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청소년 정책!"

구로구가 '2021 구로청소년총투표'를 실시한다.

구로혁신교육지구 청소년 자치연합조직인 '그린나래'는 지난 5, 6월 두달간 대의원회, 청소년 공론장과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학생회 등을 통해 191개의 청소년 정책을 제안 받았다.

이 중 총 10개의 정책 ▲청소년 학습 및 모임을 위한 공간 설치 ▲청소년 여가시설 다양화 ▲청소년 등·하교 시 교통비 지원 ▲지역 내 진로 관련 시설 및 프로그

램 확대 ▲청소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등이 총투표 안건으로 선정됐다.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투표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오는 17일까지 네이버 오피스 폼(http://naver.me/5kJHnr5)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구로구는 최대 투표율, 최대 투표수 학교 2곳을 뽑아 11월에 진행될 학생의 날 캠페인 때 간식차 또는 간식꾸러미를,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3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만수 기자〉

고대구로병원, 기한 임박·초과 화이자 백신 147명에 접종

질병청 “백신 효과성 따져 ‘재접종’ 여부 판단”

고대구로병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140여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재접종’ 여부를 심의 중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고대구로병원에서는 화이자 접종을 진행하면서 해동 후 접종 권고 기한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투여했다.

화이자 백신은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고 냉장이나 상온에서 해동해서 써야 한다. 미개봉 바이알(병)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해야 하고,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했다면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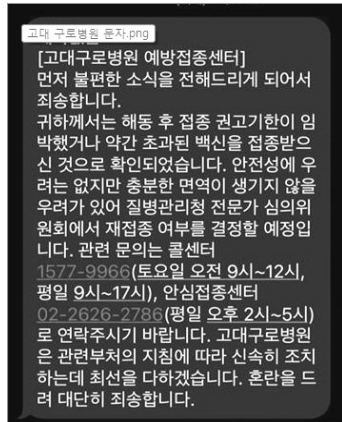
폐기돼야 할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147명이며, 대부분은 1차 접종자였다. 고대구로병원은 전날 늦은 밤 접종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해동 후 접종 권고기한이 임박했

거나 약간 초과된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성에 우려는 없지만 충분한 면역이 생기지 않을 우려가 있어 질병청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로구보건소는 관계자 “유효기간이 지난 8월 20일 또는 26일인 백신을 8월 26일, 27일에 접종했다”며 “병원은 이 사실은 지난 3시 인지하고 오후 5시에 보건소로 유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재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초과 백신을 접종한 경우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을 전문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만약 재접종을 한다면 기접종일로부터 3주 후 재접종하게 되므로 3주가 도래하기 이전에 결정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동 후 백신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사용한 것이어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접종자 김 모씨(46)는 “백신 접종 후에 심장 두근거림과 근육통 증세로 내과 진료도 받았는데 접종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밤중에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알려주지 않는 보건소와 병원의 무성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대구로병원 관계자는 “백신 재접종 여부에 대한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점검, 관리,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6인모임 허용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환원... 추석 연휴 가족모임 8명까지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됐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부터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 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유권 기자>

30세 이상 건설 현장 근로자 등 백신 접종

5일 구민회관서 500여명 접종 완료... 700여명은 6~17일 보건소서 접종



구로구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구로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방역 관련 안내 전단지, 마스크 등을 전달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있다.

구로구가 건설 현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구는 집단감염 확산을 막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난달 신청을 받았다.

접종 대상은 30세 이상의 건설 현장 근로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1200여명이다.

지난 5일 건설 현장 근로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구로구민회관(가마산로25길 21)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실시됐다.

6일부터 17일까지는 구로구보건소(구로중앙로28길 66)에서 신청자 중 미접종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백신은 존슨앤존슨(J&J) 계열인 얀센 백신이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 3일 남구로역 인근 인력사무소와 가리봉오거리 등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구로구는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구로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방역 관련 안내 전단지, 마스크 등을 전달하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했다. <김유권 기자>

관내 누적 확진자 3,000명 넘었다

공사현장·유치원·고시텔 등서 집단감염 1주일 전 비해 231명 늘어 3,069명 기록

전국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 관내에서도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어 누적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다.

7일 현재 관내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에 비해 231명이 늘어나 누적 3,06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35명, 2일 28명, 3일 27명, 4일 31명, 5일 42명, 6일 38명 7일 24명을 기록하는 등 일주일 전에 비해 모두 231명이 늘어나 7일 현재 누적 3,069명을 기록했다. 하루에 평균 33명 꼴이다.

사망자는 15명으로 전주 비해 1명 늘었고 2,539명이 완치 퇴원, 514명이 치료종료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955명, 해외입국자 258명 등 모두 1,213명이다. 누적 확진자수로 보면 25개구 중 14번째로 지난주와 같다.

관내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나왔다. 8월25일 항동 공사현장에서 38명(구민 2명 포함)과 가리봉동 모 고시텔서 9명(구민 7명 포함) 그리고 신도림동 모 유치원서 5명이 집단으로 감염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7일

현재 모두 8만3,138명으로 사망자는 595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은 6,044명으로 6천명을 넘었고 ▲송파구 4,987명 ▲관악구 4,622명 ▲서초구 3,793명 ▲강서구 3,752명 ▲동작구 3,607명 ▲은평구 3,596명 ▲영등포구 3,583명 ▲노원구 3,362명 ▲중랑구 3,238명 ▲성북구 3,165명 ▲강동구 3,140명 ▲마포구 3,112 ▲구로구 3,069명 ▲양천구 2,840명 ▲광진구 2,802명 ▲동대문구 2,757명 ▲성동구 2,387명 ▲용산구 2,382명 ▲서대문구 2,268명 ▲도봉구 2,181명 ▲강북구 2,161명 ▲금천구 1,630명 ▲종로구 1,294명 ▲중구 1,278명 순이다. <채홍길 기자>

주민 1차 백신접종률 63%, 2차도 37%

24만9,345명 접종... 2차도 14만7,162명 마쳐 37.3%

백신 부작용 신고도 늘어 사망 5건 등 누적 1,275건 넘어

구로구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인구 대비 접종률이 7일 0시 기준 1차 63.1%, 2차(접종 완료) 37.3%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구로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24만9,345명으로, 관내 전체 인구 내·외국인 포함 42만4,582명(2021년 6월 기준)의 63.1%에

해당한다.

1회 접종만으로 끝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1·2차 접종 수 치에 모두 반영된다.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총 14만7,162명이다. 이는 인구 대비 37.3%다.

서울시 평균은 1차 59.6%와 2차 35.7%다. <채홍길 기자>

이와 함께 접종 부작용 신고도 늘어나 지난 3월 첫 백신 접종 이후 관내 백신 부작용 건수는 사망 5건 포함 1,275건으로 집계됐다.

구로보건소가 밝힌 백신 부작용 신고 1,275건을 증상별로 보면 7일 현재 △사망자는 지난주와 같은 5건 △아나필락시스 10건 △기타 8건 △경미 증상 1,252건으로 집계 됐다. <채홍길 기자>

장동석시인, 시집 '내 삶의 길목에서' 등 6종 출간

공직 32년 퇴직 후 써 온 詩 720편 전자-종이책으로 출간

장동석 시인이 제7~12시집 총 6종이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한국문학방송'에서 동시에 출간했다.

구로구청 공무원으로 32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그 동안 틈틈이 써 온 詩 720편을 모아 제7시집 '내 삶의 길목에서'를 비롯 제8시집 '바다의 악보' 제9시집 '쇠뿔구리 같은 세상' 제10시집 '물위에 쓰는 詩' 제11시집 '낙엽이 가는 길' 제12시집 '허수아비의 찬가' 등을 발간했다.

장 시인은 "겉치레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희로애락을 작가 나름대로 느낀 감정과 사상에다 틀을 맞춰 독창적인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고백해 문단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견시인이다.

2003년 월간 「한국시」에 신인상 수상과 더불어 정식으로 문단계에 발을 들여놓은 후 (사)한국문인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부터 첫 시집 '그대 영상이 보이는 창에'를 비롯 '그리움이라고는 더욱 말할 수 없다' '구로동 수채화' 빈 공간을 채우는 영혼 '외로움으로



장동석 시인이 전자책과 종이책으로 펴낸 제7~12시집 6종.

사는 게 사람이다' '가장 아름다운 퇴장'과 수필집 '태양이 있는 밤에' 등을 펴낸 바 있다.

장 시인은 (사)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한국문학관건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구로문인협회 제12, 13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구로지부회장을 3년째 맡아, 문화의 불모지였던 구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장 시인이 5년 만에 선을 보이는 이번 시집들에서 "나는 언어의 미술사다. 한 편의 詩를 짓는다는 것은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이라면서 "이제야 내게 이름 없는 들녘에 핀 작은 꽃이지만, 예순다섯 해가 지나고 나서야 시인이

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책들 '시인의 말'에서 토로하고 있다.

한 편의 詩를 만날 때 한 시인의 목소리를 만나고, 한 권의 시집을 읽으면 한 시인의 삶과 인생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 시인은 한 시대를 앞서가기까지 고통을 겪었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바, 오늘의 서정적인 정서를 담은 시집 총 6종이 탄생하게 됐다.

이 시집들은 '한국문학방송'에서 동시에 출간하여 DSB 콘텐츠물www.contentsmall.kr)과 교보문고 등 일반서점에서 전자책 또는 종이책으로 절찬리에 판매(각 권당 18,000원)되고 있다.

〈김유권 기자〉

초대시

아버님·어머님 전상서

시인 송희순



아버님, 어머님
올 추석은 추석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시간.인원제한 등
영업도 전과 같지 않고
IMF 때 보다는 더 힘들다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들에는 농부가 여름내 흘린 땀으로 일군
오곡백과가 알차게 영글었습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인데
비대면 명절이란 초유의 사태를
온 국민들이 맞이 하면서
스스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찾아 뵙지 못하는 추석 명절
귀뚜라미 소리가 또르르 구르고
밤·대추들이 토실하게 익어가고
벼들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가을자두는 빨갛게 익어가는 들녘을 보며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송림가·실크로드 대표〉

순수문예지 '문학광장' 90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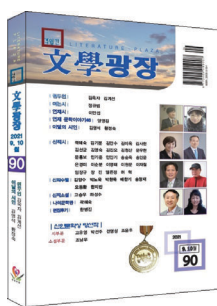
'이달의 시' '신작시' '신작수필' '신작소설' 과 신인문학상 시·소설 당선작, 심사평과 소감 실려

구로구 관내 순수 문학잡지인 격월간 '문학광장' (발행인 김옥자)이 최근 2021년 9-10월호인 통권 제90호를 발행했다.

이번 90호에는 김옥자 발행인의 '진정한 자유의 삶과 문학'과 김

계선 문학광장 서울지부장의 '인화로 뭉친 공동체'란 제목으로 권두언이 실렸다.

9-10월 여는시는 정규범 시인(문학광장 이사장)의 '본(本)'과, 연재시엔 이만섭 시인의 '어느날의



시꽃'의 4편과 황정숙 시인의 '바람(風)'의 4편이 게재됐다. 신작시로는 곽혜숙, 김만수, 김

詩意圖'의 2편이 게재됐다.

'이달의 시인'에는 김영석 시인의 '접' 시의 4편과 황정숙 시인의 '바람(風)'의 4편이 게재됐다.

선균, 김영숙, 송순옥, 이재철, 엘튼정 시인 등 25명 회원들의 주옥같은 시가 수록됐다.

또 신작수필엔 김양수, 배한기, 송창재, 한지빈 수필가 등 7인의 작품이 실렸고, 신작 소설에는 고승우 작가의 '영원히 사는길'과 하성수 작가의 '생명의 불꽃'이 게재됐다.

한편 신인문학상 당선작으로 시 부문에 고유영씨의 '툭니바퀴'의

2편, 박선주씨의 '목련꽃'의 2편, 전명성씨의 '돌아가다'의 2편, 조운후씨의 '청(請)': 바람의 2편이, 그리고 소설부문에는 조남우씨의 '그 해 여름 날'의 작품 및 당선 소감, 그리고 심사평이 자세하게 실렸다.

부록에는 '우리말 사전'과 한병진 문학광장 카페운영위원장의 제90호 나오기까지 편집후기가 올라와 있다. 〈채홍길 기자〉

우리농촌 살리기운동

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 '가을 자두' 5Kg 예약 판매

구로오늘신문사는 '우리농촌 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구로구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저렴하고 알찬 추석 선물로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새콤달콤한 경기도 이천 명품 '가을 자두' (추희) 5Kg 추석 명절 선물 한정판매 합니다. 가을 자두의 제철 당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 전 9월13일부터 19일(추석전)까지 직배송 합니다.

추석 명절 최고의 선물 '가을 자두'
예약문의 구로오늘신문 010-9096-1144

